

한반도 근해 출수 송원도자(宋元陶瓷)의 양상과 최종 수요처

송 동 립*

〈목 차〉

- I. 머리말
- II. 송원자기의 한반도 해역 출수 양상
- III. 출수 송원자기의 양식적 특징
- IV. 출수 송원자기의 최종 목적지
- V. 맺음말

국문요약

송원시기 한반도 근해에서 출수되는 중국도자의 종류는 월주요(越州窯), 요주요(耀州窯), 자주요(磁州窯), 경덕진요(景德鎮窯), 용천요(龍泉窯), 건요(建窯), 길주요(吉州窯), 복건요(福建窯), 덕화요(德化窯), 서촌요(西村窯) 등 매우 다양하다. 오대·북송시기에는 월주요·요주요의 청자와 자주요 백자 등이 발견되며, 남송·원대에는 용천요와 경덕진요 그리고 복건에서 생산된 청백자 계열의 자기가 출수자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시기별로 수입하는 자기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며, 출수자기를 통하여 살펴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반도 근해에서 출수된 송원도자는 크게 3개의 유물지점을 나눌 수 있다. 오대·북송시기에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제 1지점인 경기·충청해역에 집중되어 출수되고 있으며, 항해기술이 발달하는 남송·원대가 되면 제 1·2·3지점 모두에서 송원도자가 출수되며, 그 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기종과 비교해보았을 때, 제 1지점의 출수되는 경덕진 청백자 접시는 한반도의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송원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용천 청자가 1점도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적이다. 제 2지점은 전라도해역이다.

* 한성백제박물관 전시기획과 학예연구사

그 중 신안해역에 출수 유물이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경덕진계 청백자와 용천 청자가 大宗을 이루고 있다. 제 3지점은 제주도 인근해역이다.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1개 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청자가 출수되었다.

둘째, 출수지점과 고대문헌에서 기록을 근거로 시대별로 주로 사용되던 항로를 재현하였다. 북송 중후기(1074)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산동반도에서 출발하는 북방항로가 정식루트로 사용되었으나,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후로 Ningbo를 중심으로 한 남방항로가 官用루트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기점으로 Ningbo 인근에 위치한 용천요와 경덕진요 자기가 수출품의 주요 품종으로 떠올랐다.

셋째, 한반도 인근해역 출수 송원도자의 목적지에 대해 추정하였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보이는 수많은 송원도자는 한반도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일본 열도에서만 출수되는 특수기형이 제 2지점 여러 곳에서 보인다. 출수자기의 위치를 통하여 파악한 중국도자는 대부분이 Ningbo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이며, 그 목적지는 일본으로 보인다. 경로는 크게 2가지 루트로 나뉘는데, 제 2지점인 한반도 서남부해역을 거치는 루트와 Ningbo에서 계절풍을 타고 하카타로 향하는 직항루트를 사용하였다.

주제어 : 송원시기, 중국도자, 출수도자, 도자무역

I. 머리말

송원(宋元)시기는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 특히 중국의 제자업(製瓷業)과 상업(商業), 항해기술(航海技術)의 비약적인 발전은 중국도자기가 해상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덕진 청백자와 용천 청자는 오대(五代)·북송(北宋)의 제자기술(制瓷技術)의 발전을 거치면서 우수한 품질의 자기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지리적인 이점이 더해져 수출 자기의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¹⁾ 뿐만 아니라, 경덕진 청백자와 용천 청자의 제자기술은 동시대 강서성·북건성·광동성·호남성 등으로 퍼져나갔으며, 수많은 가마에서 유사 자기를 생산하게 되었고 중국 남방에 두 개의 거대한 경덕진 청백자계와 용천 청자계의 요장(窯場)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경덕진요와 용천요가 명청(明清) 시기까지 최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은 한대(漢代) 이후로 중국도자의 가장 큰 수입국이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중국 유물은 한반도의 고대국가들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²⁾ 항해기술이 발전한 송원 대에는 더 다양한 중국도자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진아·김영미·김윤정 등이 고려 유적에서 발견된 송대 중국도자의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양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³⁾ 일본에서 출토된 중국자기에 대해서는 20세기 80년대에서 21세기 초까지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후에 출토된 상

1)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沈岳明, 『中國 龍泉 陶磁器의 對外 輸出』,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2006, 285~292; 江建新, 『中國 景德鎮 宋·元時期 瓷器 輸出과 新安沈沒船의 瓷器』,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 유물』, 2006, pp.309~335.

2) 그중에서도 삼국시대의 백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실제로 백제고토에서 100여점이 넘는 중국도자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 다른 국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수량이다.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崔淳雨, 『韓國出土의 中國陶磁』, 『世界陶磁全集』12, 小學館, 1977, 292~294; 김영원, 『한반도 출토 중국도자』, 『우리 문화속의 중국도자기』, 2004, 132~149; 成正鏞, 『百濟와 中國의 貿易陶磁』, 『百濟研究』38, 2003, pp.25~56; 趙胤宰, 『略論韓國百濟故地出土의 中國陶磁』, 『故宮博物院院刊』2, 2006, 88~113; 정상기, 『부여지방 출토 중국 수입 도자』, 『忠北史學』17, 2006, pp.31~60.

3) 임진아,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졸업논문, 2002; 金英美, 『韓國國立中央博物館藏高麗遺蹟出土中國瓷器』, 『文物』4, 2010, pp.77~95; 金允貞, 『韓國出土宋代靑白瓷의 現況和特徵』, 『2012'海上絲綢之路-中國古代瓷器輸出及文化影響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省人民美術出版社, 2013, pp.279~293.

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⁴⁾ 일본의 경우는 한당(漢唐)시기에는 한반도보다 발견되는 수량은 적으나, 항해기술의 발달과 무역업이 발전하는 송원시기에 이르면 한반도의 수입량을 크게 넘어서는 상황이다.⁵⁾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출토된 중국자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출수된 중국자기에 대한 연구는 다나카 카즈코가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중국도자기를 기초로 동아시아 해역 해상무역의 양상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으나,⁶⁾ 그 외 한반도 및 일본 근해의 종합적인 출수 양상에 대해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출수되는 중국도자의 양상을 통하여 주요 수출 품종과 시기에 따른 품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송원도자가 Ningbo(寧波)항을⁷⁾ 중심으로 천주(泉州)·산둥(山東)의 항구에서 동아시아의 한국·일본으로 향하는 해상실크로드의 루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송원자기의 한반도 해역 출수 양상

송왕조(宋王朝)는 건국 초기부터 해외무역을 중요시 했으며, 대외무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관리하였다. 동남연해지역(東南沿海地域)에 차례로 시박사(市舶司)를 설립하였는데,⁸⁾ 개보(開寶) 4년(971)에 광주(廣州)를 시작으로 항주(杭州)와 명주(明州) 그리고 원우(元祐) 2년(1087)에 천주(泉州)에 시박사를 설립하였다. 1088년에는 고려와의 왕래편의를 위하여 밀

4) 長谷部樂爾, 『日本の宋元陶磁』, 『中國古外銷陶磁研究資料』一輯, 1981, 18~20; 長谷部樂爾, 『日本出土の元明陶磁』, 『中國古外銷陶磁研究資料』三輯, 1983, 27~42;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奈良・平安の中國陶磁-西日本出土品を中心として-』, 1984; 袁嵐, 『7-14世紀中日文化交流的考古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長谷部樂爾·今井敦, 『中國の陶磁・日本出土の中國陶磁』12, 平凡社, 1995; 袁豐, 『中國の陶磁』5, 平凡社, 1998; 謝明良, 『日本出土唐宋時代陶磁及其有關問題』, 『故宮學術季刊』4, 13卷, 85~139; 黃義軍, 『宋代青白瓷考古學文化的歷史地理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5)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중국자기의 시대적·지역적인 특징이 존재하며, 추후에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하고자 한다.

6) 다나카 카즈코, 『한국의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토된 중국도자기로 본 동아시아해역』,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 2013.

7) Ningbo는 현재의 명칭이며, 송대에는 명주(明州), 원나라 때에는 경원(慶元)이라 불렀다.

8) 시박사는 출입하는 선박의 상품 검사, 무역세의 징수, 전매품(專賣品) 매입, 외국상인 관리 등을 책임졌다.

주(密州)에 시박사를 설립하였다.⁹⁾ 북방 영토를 잃은 남송(南宋) 시기에는 해외 무역이 더욱 중시되었으며, 건염(建炎) 2년(1128)에는 양절·복건로(兩浙·福建路)에 제거시박사(提舉市舶司)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양절·복건·광남동로 3곳에 시박사가 병존 하였는데, 이를 “삼로시박사(三路市舶司)” 혹은 “삼로시박(三路市舶)”이라고 불렀다. 원대(元代)는 해외무역의 전성시기로 천주·상해(上海)·감포(澗浦)·온주(溫州)·광주·항주·경원(慶元) 7곳에 국가의 정식 개방 항구로써 시박사를 설치하였다.¹⁰⁾ 송원시기의 시박사 설립은 주변 국가로의 무역교류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¹¹⁾ 무역품으로 중국도자(中國陶瓷)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박사의 설립은 시박사 인근 지역의 자기 가마가 흥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광주 인근의 서촌요·조주요(潮州窯), 명주(明州) 주변의 월주요·용천요·경덕진요¹²⁾, 천주 근처의 덕화요·광택요(光澤窯) 등이 그들이다. 그 중에서도 명주는 동아시아 항선의 기점이자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¹³⁾ 인근에 품질 좋은 청자 월주요와 용천요, 청백자의 경덕진요가 위치하여 동아시아 무역에 있어서 상승효과가 작용하였고, 그 결과 송원자기 중에 가장 광범위 하게 수출된 자기가 되었다.¹⁴⁾

1. 출수 자기의 지역적 구분

현재까지 발견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해항구도시와 침몰 유적 등을 통하여 송원시기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를 왕래하던 무역선의 항로를 그려 볼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인근 해역은 한·중·일의 선박이 왕래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9) 周亞非, 『論宋元時期山東半島對外交往』, 『登州與海上絲綢之路』, 人民出版社, 2009.
 10) 원나라는 13세기 말까지 축소·병합을 통하여 천주·광주·경원 3곳에서 시박사를 운영하였다.
 11) 물론 시박사의 설립만이 송원시기의 해외무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송대에 이르러 조선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매 선박의 적재량이 오천석(300톤)에 이르렀다. 또한 북송 후기의 나침반이 널리 사용되며, 바닷길과 관련된 전문서적인 『針經』이 출현하였다.
 12) 경덕진요의 경우, 명주항에 바로 인접해 있지 않지만, 장강을 통하여 명주항까지 운송한 후 해외로 수출 되었다.
 13) 陳高華·吳泰, 『宋元時期的海外貿易』, 天津人民出版社, 1981, 99; 陳高華, 『元朝與高麗的海上交通』, 『陳高華文集』, 上海辭書出版社, 2005, pp.378~379.
 14) 경덕진 청백자는 북송 초기에는 북방의 대표적인 백자가마인 형요 정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수량이 많지 않았으나, 북방지역의 계속된 전란과 송정부의 대외무역 중시 그리고 경덕진 청백자의 품질향상 등의 이유로 점차적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북방의 영토를 내준 11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완전히 북방백자를 대체하게 된다. 경덕진 청백자는 水運을 통하여 수출되었는데, 먼저 영파항에 운송된 후 직접 한반도로 향하거나, 무역항선에 따라 산둥반도를 거치거나 천주항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향했으며, 그 외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인도양으로 향했다.

시 거쳐야 하는 지점으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유물들이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는데, 196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244건 1913점의 유물이 신고 등록되었다.¹⁵⁾ 대부분이 한국 도자기이지만, 중국도자기도 포함하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 도자 무역 노선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실물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 근해에서 출수된 중국자기의 분포 범위는 태안반도에서 제주도 인근 동중국해까지 이어져 있다. 그 중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의 원대침물선과 태안반도 마도 수역에서 정식으로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지점은 어부의 신고 등을 통하여 알려졌다.¹⁶⁾

			
월주요 청자 화형완 (태안 마도)	월주요 청자 완 (전북 군산시)	오주요 청자 압출양각 모란문 완편(태안 마도)	자주요계 백자완 (태안 마도) ¹⁷⁾

도 1. 제1지점 출수 오대·복송 자기

표 1. 한반도 근해 출수 오대·송·원시기 도자 분포표¹⁸⁾

연번	도자 품종 및 수량 ¹⁹⁾	생산가마	시대	출수지점
1	청백자완·접시, 청자완 등 166점	경덕진월주요주 북건 등	오대-원	충남 태안군 마도 인근해역
2	청자철화화문대접		남송-원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	갈유사이호	광동 석완	원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앞바다
4	청자접시*2	용천	원	충남 보령시 삼시도와 불모도 사이 해저

¹⁵⁾ 위 수치는 출수된 모든 도자를 포함한 것이다. 대부분이 신고나 채취 해변 수습을 통한 것이며, 정식 발굴이 진행된 유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 2010.

¹⁶⁾ 이로 인해 각 유물지점에 대한 연구와 출수자기의 조합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포도에 나타난 지점은 중국자기의 출수지점과 품종을 파악하여 주요 수출 품종과 그 루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¹⁷⁾ 자주요계로 보는 이유는 화장토를 입히고 유약을 입힌 점이며, 생산지는 중국 북방의 하북·하남·산둥지역으로 보인다.

¹⁸⁾ 도표는 출수지점의 북에서 남의 순서이며, 유물 자료는 이하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중국도자기』, 2004;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 2010;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출수 중국도자기』,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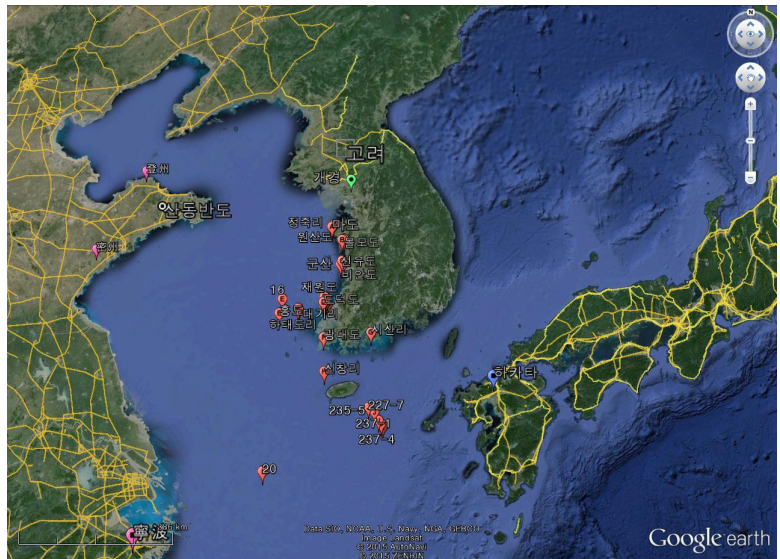
5	청자완	월주	오대	전북 군산시 앞바다
6	청자완		송	전북 군산시 비안도 근해
7	청백자합	경덕진·복건	남송	전북 군산시 선유도 근해
8	청자청백자등 5000여점	경덕진·용천 등	원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해저 (신안선)
9	청자음인각연화문완	용천	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 앞 해상
10	청자완·잔탁·병, 백자발·백자접시	용천·복건	원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
11	청자양이병	용천	원	전남 신안군 입자면 대기리
12	청자완·항로, 백자발*2	용천·복건	원	전남 신안군 입자면 재원도 해상
13	백자사이병	복건	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리 서북방 9마일 해상
14	백자사이병	복건	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리 서북방 6마일
15	백자사이병	복건	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30마일 해상
16	갈유호	중국남부	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서북방 40마일 해상
17	흑갈유양이병	강소 의흥	원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광대도 근해
18	균유계호자	절강 철점	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앞바다
19	청자대접		남송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도 신창리 앞바다
20	녹갈유호		원	동중국해 180마일
21	청자음각모란문협층완	용천	남송	제주도 동남쪽 근해 227-7해구
22	청자연관문대접	용천	남송-원	제주도 동남쪽 근해 235-5해구
23	청자연관문대접	용천	남송-원	제주도 동남쪽 근해 237-1해구
24	청화백자완			제주도 동남쪽 근해 237-4해구
25	청자연관문대접*4	용천	남송-원	제주도 동남쪽 근해 238-3해구
26	청자연관문대접*2, 백자접시	미상·복건	송-원	제주도 동남쪽 근해 238-3해구
27	도기호	미상	원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외갈도 앞

표1은 한반도 해역에서 출수된 송원도자의 분포 상황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이 중에서 태안 마도와 군산 앞바다에서 출토된 2점의 오대 월주요 청자완(靑瓷碗)을 제외하고는 모두 송원시기의 자기이다. 여기에 북송 시기는 요주요 청자와 자주요 백자만 보이며(도 1), 그 외 대부분이 남송과 원시기에 집중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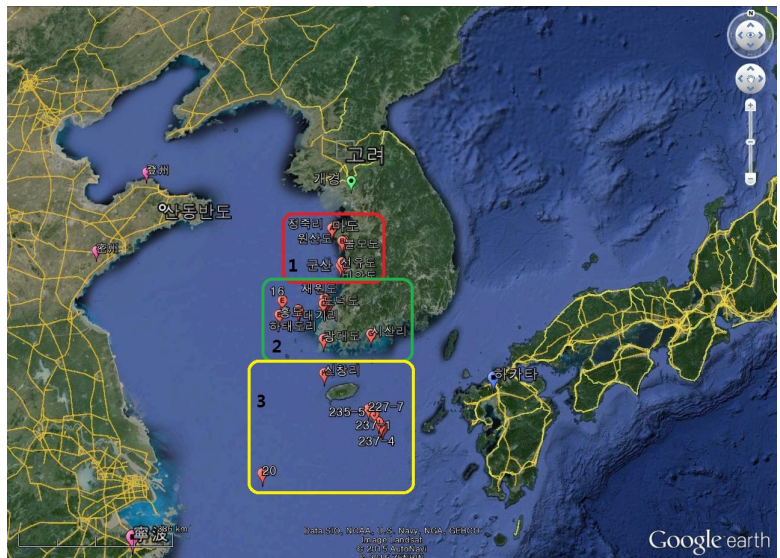
19) 출수 도자의년대, 출수 지점 그리고 생산 가마는 대부분 보고서의 의견을 따랐으며, 송원시대의 자기만 표시하였으나, 연번1 마도 출수 자기의 경우 그 지점에서 출수된 전체 중국자기의 수량이다.

있다. 생산 가마는 태안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소수의 월주요·요주요·자주요계 자기를 제외한 모든 도자가 중국 남방지역 가마에서 생산되었다.

도2는 표1의 출수 자료들에 근거하여 분포 지점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출수 유물의 양상과 위치에 따라 크게 3개의 지점으로 나누었다(도 3). 첫 번째



도 2. 한반도 근해 출수 오대·송·원시기 중국 도자 분포도



도 3. 한반도 근해 출수 오대·송·원시기 중국 도자 분포도(3지점 구획)

지점은 경기·충청·전북해역으로, 모두 7개 지점에서 중국도자가 발견되었다. 이 지점은 유일하게 오대·북송시기의 도자가 보이는 점과 오대에서 원시기까지 다양한 자기가 출수 되고 있다. 또한 남북의 가마에서 생산된 도자가 모두 보이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지점은 전라남도 인근해역이다. 이곳은 출수 지점과 출수 유물이 가장 집중된 곳으로 27개 지점 중에 12개 지점이 이곳에 분포 되었는데,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신안해역인 점이 주목된다. 경덕진 청백자와 용천 청자를 비롯하여 복건·절강·강소성 등 남방에서 생산된 자기가 주로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지점은 제주도 근해로 총 8개 지점이다. 이 중에 1개 지점만이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지점은 모두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다. 1개 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청자가 출수된 것이 특징적이다.

2. 고대 문헌 기록의 무역 항로

상술한 3개의 지점으로 구분한 송원자기의 출수 지점은 고대문헌에서 기록하고 있는 항로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승려 엔닌(圓仁)이 기록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중에 산둥반도에서 한반도를 거치는 항로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엔닌은 회창(會昌) 7년(847)에 모평현(牟平縣) 남쪽의 유산포(乳山浦)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일이 생겨 돌아가지 못하였다. 다시 명주로 가서 일본 상선을 타고 귀국하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잘 안되어 다시 산둥으로 돌아갔다. 산둥 적산포(赤山浦)에서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그 항해루트에 대해 상세히 적어두었다.

“산둥 적산포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하루 밤낮을 갔다. 3일째 새벽에 동쪽에 신라국 서쪽 섬이 보였다. 바람이 정북으로 변하여, 동남 방향으로 하루 밤낮을 갔다. 4일째 새벽, 응주(熊州)가 보였으며, 5일째 고이도(高移島)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섬의 서북쪽 100리에 흑산(黑山)이 있었다. 6일째 황모도(黃茅島)에 정박하였다. 동남쪽에 요원하게 탐라도(耽羅島)가 보였다. 며칠째 바람이 없어 출항을 못하다가 겨우 출항하여 동쪽으로 항해하여 안도(雁島)에 도달하였다. 신라의 동남쪽에서 대해를 건너 동남행을 하였다. 10일째 새벽에 저 멀리 대마도가 보였다. 녹도(鹿島)와 굴포(橘浦)를 거쳐 하카타에 도착하여 코로칸(鴻臚館)에 들어갔다.”²⁰⁾

²⁰⁾ 九月二日午時，從赤浦渡海，出赤山莫瑯口，向正東行一日一夜，至三日平明向東望見新羅國西面之山，風變正北，側帆向東南行一日一夜，至四日曉，向東見山嶋段段而接連，問樞工等，乃雲：“是新

엔닌의 기록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의 주요 루트는 산둥반도를 기점으로 한 북방항로인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시기에 이미 일본 상선이宁波에서 일본으로 항해를 했다는 점이다.

송원시기에는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은 唐시기의 항로인 북방항로와 남방항로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송사(宋史)·고려열전(高麗列傳)』에도 북방항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순화(淳化) 4년(993)에 산둥 지강도(芝岡島)에서 순풍을 타고 대해를 건너면 웅진(翁進)에 상륙한다. 160리를 가면 해주(海州)에 도달하며, 다시 백리를 가면 염주(閔州)이다. 사십 리를 더 가면 백주(白州)인데, 여기서 사십 리를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²¹⁾

1074년 이후, 거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려에서 관방의 정식루트를 산둥에서 절강 명주로 바뀌기를 희망하였다.²²⁾ 그 후에도 북송 정부는 여전히 북방항로를 주 항로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항해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남방항로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었다.²³⁾

북송 말이 되면 송나라는 금나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하여 남방항로를 사절(使節)이 왕래하는 정식 루트로 채택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공(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남방항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선화(宣化) 5년(1123)에 육로로 변경(汴京)을 출발하여 사명(四明)을 거쳐 명주에 도착하였다. 5월24일에 초보산(招寶山)에서 출항하여 대해를 건너 가거도(夾界山)를 통해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온다. 오소도·홍도·흑산도·낙

羅國西熊州西界, 本是百濟之地”終日向東南行, 東西山島聯翬欲二更到高移島泊船, 屬武州西南界. 島之西北去百里許有黑山. …五日, 風變東南, 發不得. 到三更得西北風發. 六日, 卯時, 到武州南界黃茅島泥浦泊船, 亦名丘草島. …從高移島到丘草島, 山島相連. 向東南遙見耽羅島. 此丘草島去新羅陸地, 好風一日得到. …六日七日, 無風信. 八日, …至五更, 雖無風而發去. 才出浦口, 西風忽至, 便上帆向東行. …日欲已時到雁島暫歇, 是新羅南界. …向西南望見耽羅島. 午後, 風信更好, 發船, 從山島里行, 到新羅國東南, 出到大海, 望東南行. 十日平明, 向東遙見對馬島. 午時, 前路見本國山. 從東到西南, 相連而分明. 至初夜, 到肥前國松浦郡北界鹿島泊船. 十一日平旦, …十五日, 到橋浦. 十七日. 到博太西南能舉島下泊船. 十八日, 到鴻臚館前.”(圓仁撰·顧承甫·何泉達點校, 『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古籍出版社,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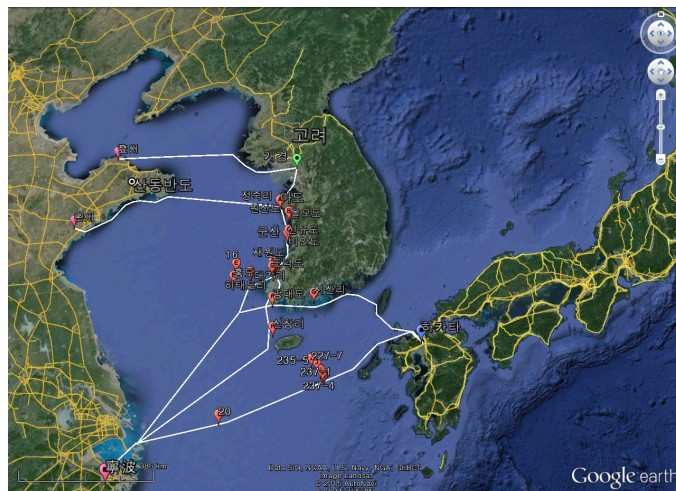
21) “(淳化)四年(993), …乘海船及高麗水工, 卽登舟自芝岡島順風泛大海, 再宿抵翁進口登陸行百六十里抵高麗之境曰海州, 又百里之閔州又四十里至白州, 又四十里至其國”(『宋史』卷487, 列傳346, 外國三, 高麗).

22) “往時, 高麗人往返皆自登州, 七年(1074)遣其臣金良鑑來言, 欲遠契丹, 乞改途明州詣闕, 從之”(『宋史』卷487, 列傳346, 外國三, 高麗).

23) 劉鳳鳴, 『山東半島與東方海上絲綢之路』, 人民出版社, 2007, pp.224.

월도·위도·식도를 차례로 지나 선유도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북향하여 원산도와 안면도를 거쳐 태안반도에 도착하며, 영종도를 거쳐 12일에 예성항에 도착한다.”²⁴⁾ 그 외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문헌통고(文獻通考)』에도 남방항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두 문헌의 내용은 비슷하다. “명주 정해에서 편풍(便風)을 만나면, 3일이면 대해에 들어간다. 5일에는 흑산(黑山·墨山)에 도착하며, 한반도가 보인다. 흑산에서 크고 작은 섬들을 지나면 7일째에 예성강에 도착한다.”²⁵⁾

이상의 문헌 기록을 통하여 항로를 살펴보면, 희영 7년(1074)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북방항로가 동아시아로 향하는 정식 루트였으나, 북송 후기부터 명주에서 출발하는 남방항로가 관용 루트로 변경되었다. 명주에서 출발하는 한반도행 선박은 반드시 신안 해역을 지나야 했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제 2지점의 가거도와 흑산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도 4. 한반도 근해 출수 오대·송·원시기 중국 도자 분포 및 항선도

도4는 출수 지점을 바탕으로 문헌에 기록된 노선을 종합한 것이다. 송원시기의 분포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항로 윤곽을 그려 볼 수 있다.

2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34-39;海道, 中華書局, 1985.

25) 元豐六年, 九月庚戌기술하길, “自明州還, 遇風四日兼夜抵黑山, 已望其國境自黑山入島嶼, 安行便風七日至京口, 陸行兩駟至開州”(『續資治通鑑長編』卷339); “自明州定海遇便風, 三日入洋, 又五日抵墨山, 入其境 墨山過島嶼, ……七日至禮成江”(『文獻通考』卷325, 四裔考·高句麗).

자기 출수 지점의 년대를 보면, 기본적으로 고대 문헌 자료와 일치한다. 출수 도자의 제 1지점은 오대·북송시기의 관방 해상 항로인 북방항로와 일치하고 있다. 북송 후기, 중국의 북방영토가 혼란기에 들어선 후에 북방항로에서 출발해서 한반도로 향하는 항선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중요한 교역품인 북방도자기 역시 한반도 근해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 그 후 절강성 Ningbo에서 출발하는 남방항로가 양국 간의 정식항로로 이용되면서 경덕진 청백자와 용천 청자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더 이상 북방자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면서 교역 항구에서 인접한 우수한 가마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영향이 주요한 원인이었지만, 항해기술과 남방제자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다. Ningbo는 용천과 경덕진에 가장 인접한 대외무역 항구이다. 경덕진 청백자는 수운을 통하여 Ningbo에 이르고, Ningbo에서 직항으로 동아시아로 수출 되거나, 남방의 천주와 광주를 거쳐 수출된다. 하지만 중심 항로는 Ningbo에서 한반도 서남부 해역을 지나는 노선과 Ningbo에서 제주도 남쪽 해역을 지나 일본열도로 향하는 두 가지 노선이었다. 이는 한반도 근해 출수 송원자기의 양상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두 핵심 노선인 한반도 서남쪽의 전라도 해역과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다량(多量)의 용천요 청자와 경덕진계 청백자가 출수된 점과 부합한다. 원대에 들어서면 중국이 통일되고 다시 중국 남북의 무역이 활발해지지만, Ningbo가 이미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된 후라 예전처럼 산둥반도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을 거치는 항로는 주요 루트로 사용되지 않았다.

Ⅲ. 출수 송원자기의 양식적 특징

출수 송원자기는 크게 양질(良質)과 조질(粗質)로 나뉜다. 경덕진요와 용천요에서 생산된 자기는 대부분 양질에 속하며, 그 외에 복건·광둥 등지에서 생산된 자기는 조질에 속하는데, 태토와 유약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경덕진과 용천에서 생산된 자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경덕진 청백자의 경우 대부분 태토가 회고 이물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유약은 흰 속에 푸르른 빛깔을 머금고 있는데, 특히 남송·원대에는 푸른 빛깔이 더욱 강하고 선명해진다. 강서성이나 복건성에서 생산된 조질의 수출용 청백자는 대부분 태토가 회색이나 어두운 회색 빛깔이며, 안에 검은 알갱이와 같은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태토가 긴밀(緊密)하지 못하고 틈이 보인다. 유약의 경우에는 더 차이가 심하다. 강서성 남풍(南豐)

백사요(白舍窯)와 복건성 덕화요에서 생산된 청백자 정도가 경덕진 청백자와 유사하다. 그 외의 대부분의 가마에서 생산된 청백자의 유약은 희거나 회색 빛갈이 강하게 나는 경우가 많으며, 유약도 대부분 균일하게 입혀져 있지 않다. 문양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쉬운 편이다.²⁶⁾

정식으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태안 마도에서 출수된 청백자접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남송·원대에 생산되는 같은 청백자계열의 자기도 태토·유약·문양·소성방법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도 5). 이는 소비계층에 따라 다양한 수출품을 선박에 적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도 5. 태안 마도 출수 경덕진계 청백자 비교(1-4는 경덕진요 생산, 5-8은 복건 생산)

가마별로는 절강성의 월주요·용천요, 강서성의 경덕진요·길주요, 강소성의 의흥요(宜興窯), 복건성의 건요·의요(義窯)·자조요(磁竈窯)·홍당요(洪塘窯), 요주요·자주요 등의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가 보이는데, 용천요 청자와 경덕진요 청백자를 포함한 복건성에서 생산된 청백자가 대부분이다. 용천요 청자는 전라남도 신안군 지역과 제주도 남쪽의 동중국해에 집중적으로 출수되었다. 경덕진계 청백자 중에 경덕진요에서 생산된 양질 청백자는 태안 마도와 신안산에서 보이고 있으며, 복건에서 생산된 조질의 청백자는 태안반도에서 제주도 남

²⁶⁾ 경덕진 청백자와 기타 청백자계 가마와의 기술 교류에 대해서는 본인의 박사 논문 제3장 제4 기술 교류 분석을 참고하길 바란다. 宋東林, 『景德鎮窯五代宋元時期青白釉瓷器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pp.210~265.

쪽 해역까지 모두 출수되고 있다.

기형별로는 완(대접)·발·잔탁·접시·합·호·병·항로가 출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완(대접)·접시·병이 여러 지점에서 보인다. 완의 경우는 수량이 가장 많고, 전 지역에 골고루 발견 되고 있다.

경덕진계 청백자 중에는 전라남도 신안 해역에서 출토된 3점의 사이병(四耳甁)은 매우 독특하여, 지역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형이다. 이 사이병은 현재까지 중국대륙이나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기형이며, 일본 열도에서만 출토되고 있다.²⁷⁾ 특히 흑산면 하태도와 홍도 근해의 유물점에서 출수된 사이병은 일본 카마쿠라시(鎌倉市) 신젠지시(心善寺址)에서 출토된 사이호와 매우 유사하다(도 6). 사이병은 대부분이 화장묘(火葬墓)에서 납골용기로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정식 발굴조사 된 청백자계 가마 중에는 사이병을 생산한 가마가 보이지 않아 정확한 생산지는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태토와 유약·제작 기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질의 청백자로 분류 된다. 유색이 회색에 가까운 빛깔이거나 누런 빛깔을 띠고 있으며, 균일하게 시유 되어 있지 않다. 굽은 저부에서 돌출 되어 있고, 시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워 붉은색을 띠고 있다. 경덕진요에서 생산한 청백자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건성에서 제작한 청백자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현재 덕화도자박물관(德化陶瓷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반구병(盤口甁)과 제작 기법과 유약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유색과 태토의 품질 그리고 출토지점으로 보아 사이병은 일본인이 상장(喪葬)의 필요로 인해 중국에서 주문 제작한 기물이며, 중국 복건지역의 가마에서 생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약별로는 오대에서 원대까지 청자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5개 지점에서 청자가 출수되었다. 대부분이 용천요 청자이며, 소수의 조질 청자도 보인다. 청백자는 9개 지점에서 보이고 있다. 그 외에 흑유·흑갈유·녹갈유·균유 등이 보이지만 수량이 많지 않다.

출수자기의 번조방법은 오대에서 북송까지는 갑발(匣鉢)과 내화토빚음 받침의 조합을 사용하였으며, 남송 시기부터는 갑발과 도침을 사용하여 굽는 방법과 구연부에 유약을 닦아내고 뒤집어서 굽는 복소(覆燒)기법으로 생산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복소기법은 남송시대 남방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남송 원대에도 많은 양질 자기는 여전히 갑발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대량 생산한 조질 자기의 경우에는 복소기법과 기물 안쪽 바닥을 고리 형태로 닦아내고 차례

²⁷⁾ 사카현 아사이도·에이메현 마츠야마시·후쿠오카시 하카타·카마쿠라시 신젠지시 등의 유적에서 출토 되었다.

로 쌓여 올려 구운 삼권(澀圈)기법을 사용하였다. 경덕진요에서 생산한 청백자의 경우, 양질 자기도 복소기법을 이용하여 소성한 자기가 상당히 많은 반면, 용천요 청자의 경우에는 복소기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기는 출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용천요 청자의 수요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IV. 출수 송원자기의 최종 목적지

한반도 해역에서 출수된 송원자기 중에 남방향로를 거쳐 개경으로 향하는 중간지점인 태안 마도수역에서 발견된 청백자 음각선문 접시와 청백자 각화문 완 등의 양질의 청백자가 파주 해음원지, 여주 원향사지, 개성 궁성지, 경주 불국사 유적, 희천시 서문동 교장 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그 외에 익산 미륵사지와 인성 봉업사지, 대전 가오동 유적 등에서 조질의 청백자가 소량 발견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해역에서 발견된 많은 량의 경덕진계 청백자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청백자는 대부분이 경덕진요에서 생산한 청백자이다. 이를 통하여 제 1지점 출수품의 목적지를 유추할 수 있다. 제 1지점은 북방향로와 남방향로를 지나 고려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출수 자기를 통하여 고려 초와 고려 중기 이후로 구분 하였다. 산동에서 출발하는 북방향로를 이용하던 고려 초기에는 월주요와 요주요 청자가 주요 공급 대상이었다. 고려 중기 이후로 Ningbo에서 개경으로 송원자기를 공급하려는 과정에서 제 2지점과 제 1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했다. 개경에 도착한 무역선은 주요 수요층인 고려 지배층과 종교계층에 양질의 경덕진 청백자와 용천 청자를 공급하였으며, 중계 지역인 개경에서 고려자기 등의 특산품을 싣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을 것이다.

가장 북방에 위치한 제 1지점인 경기·충청해역에 용천요 청자가 한 점도 보이지 않는 점과 고려시대 유적 중에 개성에서 출토된 원대 용천요 청자는 연관문 대접²⁸⁾와 경기도 남양주 수종사(水鐘寺)에서 발견된 호문호²⁹⁾ 정도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한반도 해역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용천요 청자 목적지가 한반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려의 경우에는 당시 고려청자의 제자기술이 최고에 도달하여 있었고, 자국에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여 용천 청자의 수입이 한정적이

28) 국립중앙박물관, 『中國陶磁』, 2007, p.208.

29)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중국도자기』, 2004, p.94.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³⁰⁾

그렇다면 한반도 해역에서 출수되는 송원자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느 곳인가?

제 2지점인 전라도해역과 제 3지점인 제주도해역에 위치한 유물지점에서 출수된 송원자기의 대다수가 한반도에서 비슷한 유형의 자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보이는 두 점의 용천요 청자가 신안선에서 출수된 것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질 청백자의 경우도 제 1지점인 태안 마도에서 발견된 고족완(高足碗)과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고족완이 비교적 유사하나, 그 외에 기형과 품종은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

제 2지점과 제 3지점에서 발견된 경덕진계 청백자는 일본 열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자기와 유사하다.³¹⁾ 특히 제 2지점에서 출수된 사이병 3점의 경우는 일본의 여러 유적에서 유사한 기형이 출토되고 있다. 사이병은 일본 고유의 상장문화와 결합하여 독특한 사용방법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물(器物)이다. 그 외에 다양한 송원자기가 후쿠오카 하카타 유적군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그 양상이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자기와 유사성을 보인다.³²⁾

한반도에서 거의 출토되고 있지 않는 용천 청자의 경우, 신안해역의 여러 지점에서 보이는 점, 특히 신안선에서 출수된 엄청난 수량과 다양한 품종, 그리고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의 여러 지점에서 출수되는 점은 이 도자의 목적지가 닝보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하카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대부분의 무역선이 명주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서남부의 중개 지점을 거쳐 남부해안을 따라 동행(東行)한 후, 대마도를 지나 하카타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문헌상에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제3지점인 동중국해에서 출수된 자기의 위치로 항선을 유추해 보면, 또 다른 노선은 닝보에서 출발하여 계절풍을 이용, 직접 하카타로 향하는 항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보면, 닝보에서 출항하여 한반도 서남부를 지난 대부분 선박의 최

30) 당시 고려에서 이미 백자도 생산하고 있었으나, 그 품질에서 경덕진 청백자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출토되는 청백자의 양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정, 『고려시대 유적 출토 송대 청백자의 현황과 특징』, 『야외고고학』3, 2013.

31) 일본열도에서 출토 되는 송원시기 청백자의 양상은 박사 논문 제 4장 3절의 “송원청백자의 일본 발견”을 참고하기 바란다. 宋東林, 『景德鎮窯五代宋元時期青白釉瓷器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32) 다나카 카즈코(田中克子)는 마도에서 출수된 중국자기와 후쿠오카시 하카타 유적군에서 출토된 자기를 비교하고 두 유적의 자기가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나카 가즈코, 『한국의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토된 중국도자기로 본 동아시아해역』,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 2013.

중 목적지는 일본일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는 무역선으로써 한국의 태안반도를 거쳐 개령을 무역 증개 거점으로 한·중·일 삼국을 넘나드는 무역을 진행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출수된 송원자기의 현황을 통하여, 시기별로 자기들의 출수 지점과 기종, 제작 년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출수 송원자기를 종합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송원시기에 주로 사용되던 항선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출수 자기는 크게 오대와 북송, 남송과 원대로 나눌 수 있었다. 중국 북방의 자기는 오대·북송시기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제 1지점인 경기·충청해역을 중심으로 출수되었다. 남송·원대의 출수 자기는 모두 중국 남방에서 생산된 자기로 3개의 지점에서 모두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 2지점인 전라도 신안해역과 제 3지점인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제 1지점에는 당시 송원자기 중에 가장 수출량이 많았던 용천요 청자가 1점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와 상반되게 제 2지점과 제 3지점에서는 용천요 청자가 다른 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이 발견되었다. 경덕진 청백자는 3개의 지점 모두 출수 되었는데, 제 2·3지점과는 다르게 제 1지점에서 발견된 경덕진요 청백자는 고려에 공급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당시의 항로와 정치적인 상황, 여기에 항해기술과 남방제자업의 발전을 통하여 남방의 닝보가 송원시기의 무역의 거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곳을 기반으로 동아시아로 수출된 송원자기는 대부분이 한반도 서남부해역을 지나 닝보에서 하카타로 향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에서 출수되는 송원자기의 전반적인 양상과 수출 루트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아직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발견된 중국도지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종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이 많아 출수 자료의 종합적인 모습과 자기의 조합 등의 문제에 대한 비교 분석, 한·중·일 3국의 해역에서 출수된 중국자기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 한반도에서 보이는 수많은 북송시기 중국자기의 수입경로에 대해서는 차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투고일 2016년 1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29일 ■

참고문헌

<한국>

- 江建新, 『中國 景德鎮 宋·元時期 瓷器 輸出과 新安沈沒船의 瓷器』,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2006, 309~335.
- 국립공주박물관, 『中國 六朝의 陶磁』, 2011.
- 국립대구박물관, 『우리문화 속의 中國陶磁器』, 2004.
- 국립중앙박물관, 『경덕진요 청백자- 푸르름 속에 핀 순백의 미』, 2008.
- 국립중앙박물관, 『中國陶磁』, 2007.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 2013.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2006.
- 김영미, 『신안선과 도자기 길』, 2005.
- 김영원, 『韓國과 中國의 陶磁交流, 10~19세기』, 『中國陶磁』, 국립중앙박물관, 2007.
- 김영원, 『한반도 출토 중국도자』, 『우리 문화속의 중국도자기』, 2004, 132~149.
- 김윤정, 『고려시대 유적 출토 송대 청백자의 현황과 특징』, 『야외고고학』3, 2013.
- 김윤정, 『고려후기 상감청자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 『미술사학연구』249, 2006.
- 김윤정, 『자강도 회천시 서문동 교장 출토 유물의 성격과 편년』, 『도자문화』, 2009.
- 다나카 가츠코, 『한국의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토된 중국도자기로 본 동아시아해역』,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 2013.
- 리재안, 『한국 태안 마도 수중에서 인양된 복건 도자 및 관련 문제』, 『태안 마도 출수 중국 도자기』, 2013.
-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닷속 유물, 빛을 보다』, 2010.
-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2006.
- 朴玉杰,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 『한중인문학연구』2, 1997, 112~127.
- 沈岳明, 『中國 龍泉 陶瓷器의 對外 輸出』,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2006, 285~292.
- 이난영, 『백제 지역 출토 중국도자 (中國陶瓷) 연구 - 고대의 교역도자를 중심으로 -』, 『百濟研究』28, 1998, 213~244.

- 이명옥, 『태안 마도 II지구 해저 출토 중국도자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송란, 「통일신라에 수입된 중국도자의 성격」, 『新羅史學報』15, 2009, 79-113.
- 이종민, 「高麗 墳墓 出土 陶磁 研究」, 『湖西史學會』46, 2007, 1-34.
- 이종민, 「고려 중기 수입 중국백자의 계통과 성격」, 『미술사연구』25, 2011.
- 이희관, 「월요의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미술사학연구』279·280, 2013.
- 임진아,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졸업논문, 2002
- 장남원,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美術史學』23, 2009, 171~203.
- 한성욱,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의 연구」, 『과기고고연구』16, 2010.

<중국>

- 馮先銘, 「我國宋元時期的青白瓷」, 『故宮博物院院刊』3, 1979, 30~38.
- 馮先銘, 「元以前我國瓷器銷行亞洲的考察」, 『文物』6, 1981, 65~74.
- 長谷部樂爾, 「日本の宋元陶器」, 『中國古外銷陶器研究資料』一輯, 1981, 18~20.
- 陳高華·吳泰, 『宋元時期的海外貿易』, 天津人民出版社, 1981.
- 長谷部樂爾, 「日本出土的元明陶器」, 『中國古外銷陶器研究資料』三輯, 1983, 27~42.
- 三上次男, 『陶器之路』, 文物出版社, 1984.
- 葉文程, 「宋元時期景德鎮青白瓷窯系的外銷」, 『景德鎮陶瓷』3·4, 1989.
- 馮先銘, 「中國古陶瓷的對外傳播」, 『故宮博物院院刊』2, 1990, 11~13.
- 李知宴, 「十二至十四世紀中國瓷器的發展和外銷」, 『中國歷史博物館館刊』, 1992.
- 袁嵐, 『7-14世紀中日文化交流的考古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謝明良, 「日本出土唐宋時代陶器及其有關問題」, 『故宮學術季刊』4, 13卷, 85~139.
- 陳高華, 「元朝與高麗的海上交通」, 『陳高華文集』, 上海辭書出版社, 2005, 378~379.
- 陳高華, 「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舶商」, 『陳高華文集』, 上海辭書出版社, 2005, 350~360.
- 趙胤宰, 「略論韓國百濟故地出土的中國陶器」, 『故宮博物院院刊』2, 2006, 88~113.

- 黃義軍,『宋代青白瓷考古學文化的歷史地理研究』,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2006;
黃義軍,『宋代青白瓷的歷史地理研究』,文物出版社,2010.
- 權奎山·孟原召,『古代陶瓷』,文物出版社,2008.
- 周亞非,『論宋元時期山東半島對外交往』,『登州與海上絲綢之路』,人民出版社,
2009.
- 金英美,『韓國國立中央博物館藏高麗遺蹟出土中國瓷器』,『文物』4,2010,77~
95.
- 中國古陶瓷學會,『龍泉窯研究』,2011.
- 宋東林,『宋元時期景德鎮窯裝燒工藝的研究』,『南方文物』2,2013.
- 權奎山,『說陶論瓷-權奎山陶瓷考古論文集』,文物出版社,2014.
- 宋東林,『景德鎮窯五代宋元時期青白釉瓷器研究』,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2014.

<일본>

-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奈良·平安の中國陶磁-西日本出土
品を 中心として-』,1984.
- 長谷部樂爾·今井敦,『中國の陶磁·日本出土の中國陶磁』12,平凡社,1995.
- 蓑豊,『中國の陶磁』5,平凡社,1998.
- 龜井 明德,『中國陶瓷史の 研究』,六一書房,2014.

Abstract

A Study of China porcelain Excavated from underwater near offshore Korean peninsula in the Song and Yuan Dynasties

Sgong, Dong-Lim

Kind of China porcelain excavated from underwater near offshore Korean peninsula is very diverse, including the Yue Kiln(越州窯), Yaozhou Kiln(耀州窯), Cizhou Kiln(磁州窯), Jingdezhen Kiln(景德鎮窯), Longquan Kiln(龍泉窯), Jian Kiln(建窯), Jizhou Kiln(吉州窯), Fujian Kiln(福建窯), Dehua Kiln(德化窯), Xicun Kiln(西村窯).

In the Five Dynasties and Northern Song Dynasty found Yue Kiln's porcelain, Yaozhou Kiln's porcelain and Cizhou Kiln's porcelain.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Y

uan Dynasty, Longquan Kiln, Jingdezhen Kiln, Fujian Kiln produced porcelain occupies most of excavated porcelains.

This would had a difference of imported porcelain from time to time, features seen through the excavated porcelain is as follows:

First, excavated Chinese porcelain in the Korean Peninsula waters it can be divided three points artifacts. In the Five Dynasties and Northern Song Dynasty found the first point is located in the north Gyeonggi and Chungcheong sea area.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Yuan Dynasty, Chinese porcelain will be excavated at 1, 2, 3 points, the quantity has increased greatly. Compared with the model being excavated on the Korea peninsula, excavated in the first point Qing-bai ware dish has been confirmed in several ruins of the Korean Peninsula, most of the other Chinese porcelain can not find. It is especially characteristic Longquan Celadon is invisible viscosity. The Second point is Jeolla-do sea area. Among them, Excavated porcelain is most concentrated in Sinan sea area. The two most common are Jingdezhen Qing-bai ware and Longquan

celadon. The third point is Jeju-do sea area. especially, concentrated in East China Sea south of Jeju, Except for one spot excavated Celadon.

Second, we reproduce the routes that were used primarily by period based on the record excavated point and ancient manuscripts. Prior to starting the 1074 northern route from the Shandong Peninsula was used as a formal Root, A southern route around Ningbo occurred after the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that became the official route. Starting at this contemporary changes in Ningbo near Jingdezhen Klin and Longquan Klin porcelain emerged as the main varieties of export.

Third, the estimated about excavated porcelain destination for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Numerous Chinese porcelain seen in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is the most difficult to see on the peninsula find their looks. In particular, a special anomaly only in the Japanese Archipelago seems to be excavated in various places second point. Through the position of excavated Chinese porcelain, most appear to have departed from Ningbo, that destination seems to Japan. Path is largely divided into two routes, one route goes through the sou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ther is likely to take the monsoon in Ningbo with direct routes destined directly to Hakata.

Key Words : Song and Yuan Dynasties, China porcelain, Excavated porcelain,
Porcelain trade